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4월 23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8장 5-13절

설교제목 : “제사장 위임식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막이 필요합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신혼방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5-32장까지는 성막의 청사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40장까지는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반드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제사는 어느 곳에서 드립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신12:5-7)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로에 성소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년 넘게 실로가 중앙 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게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처음으로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기기 전까지, 뽕세메스, 기랴트아림, 아비나답의 집, 오벰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둡니다. 더불어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놉 땅으로 옮겨지고,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에 각각 성전을 새롭게 만듭니다. 남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북 이스라엘은 그리심 산에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 훼파되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됩니다. 그 이후에 이두매 후손인 헤롯대제에 의해 재건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저자는 명확한 지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저자는 마치 이러한 역사의 정황을 알고 있는 듯이 정확한 지명을 밝히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장소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그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두 번째 요소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다섯 가지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목적입니다. 죄와 연관되지 않았을 경우 전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인간이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조공과 같은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가지 제사가 모두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신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요4:24) 제사의 세 번째 요소가 제사드리는 사람 즉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제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곧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연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의 중매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에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히3:1),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벧전2:9)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목사와 평신도를 불문하고, 구약의 제사장직을 대신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레위기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6절) ‘씻기고’로 번역된 ‘라하츠’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부분들을 씻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단어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더불어, 7-9절에 보면, 물로 씻김을 받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12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관유(쉐멘)는 특별한 용도의 기름인데,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정결하게 하시고, 의의 옷,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부어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더 이상 중매역할이 필요없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이 찬양대가 대신 찬양하고,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남김없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43:21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온 땅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부으신 후에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누가 이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 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시16:11)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골2:3)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의 임재를 경험하면 반드시 기쁨이 회복되고,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레위기에서 제사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봅시다. (레8:5-12)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기쁨과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해 본적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